

축의듯고봄이만홀지라엇지이갓치경양호시노노황쇼제왈첩이다른말슴을듯고저
흠이아니라부인이인간에게실적에중첩이판져규목지시를지어성덕을칭송호고일
호투기지심을두지아니시니만일교식흠이아니삼죽철정의다름이잇는가호는이다
상청부인이당황왈투기란거시무엇을니름이노황쇼제왈녀의평성이가부에게달
넷거늘가귀만일중첩을두어은총을음긴죽엇지식의지심이업스리오초소위투기니
이다상청부인이이말을듯더니발연작식호며몸을니러교의에올나안즈며좌우를호
령호야황쇼제를잡아는리와게하에살니고대척왈

네엇더흔더러온물건으로감히더러온말을가져내귀에들니는다내인간에구십년
을잇서도일죽투기란말을듯지못호엇더니네이제음란호음과참괴호명목으로
조결치아닌말을구두에올녀나를취딕고저호니너갓흔음부는옥경청도에잠간이

라도머므지못홀지라셀니도라가인간녀즈에게전호지어다대범부인은유순단정
호야전일호를음이니만일여기넘천죽엇지군즈의뻘뻘호형실이리오만일일로써

나를칭도호죽내엇지감슈호리오
稱道 甘受

상청부인이썩짓기를다호고시녀를호령호야황쇼제를모라내치니황쇼제일변분호
고일변참괴호야길을차자나오더니홀연호곳을바라봄애음습호괴운이스면에자욱

呂威夫人 王如馬氏 王充氏

호고추추호곡성이은은이들니더니압홀당호야보니웅덩이에불결지물이갓득호야
내암재축비호중무슈호녀지그속에빠져헤어나지못호야혹머리를내밀며팔을휘져
어황쇼제를보고부르지저올거늘황쇼제그내암재를피호야감히갓가이가지못호고
멀니문왈랑등은엇더호사름이완대디경을당호노일기녀저올며고왈첩은한나라
녀취러니전성에투기호야척부인을살해호고여의를짐살호죄로이고초를밧는이다
또일기녀저올며고왈첩은진나라왕도의처마씨러니전성에투기호야중첩을모합호
고가부를욕호죄로이고초를당호는이다또일기녀지고왈첩은가총의처왕씨러니중
첩을투기호야조식을치독호죄로이고초를밧는이다그뒤를니어모든녀지초례로올
며하소왈첩등은다주문갑대의부기를누린혁혁호짐녀저라평성에다른죄악이업
스나다만투기지심을두어가도를락란호죄로이고초를밧는이다황쇼제이거동을봄
애모음이참괴호고모골이송구호야능히일언을답지못호고소매로얼골을그리오며
돌쳐다라나니모든녀저일제이소리치며불너왈연국부인은닷지말라그디또호우리
동튀라맛당히이고초를흠게격그리라호고더러온물건을움겨져더지며일시에조
차오거늘황쇼제대경호야크게소리를지르고쳐치니숨이라전신의호르는숨이침요
가다져졌고참분호음음이괴지못호야던전불미호며스스로싱각호되나호엇더호
사름이며상청부인은엇더호사름이노고문갑대의왕후부인은피초일반이오이목구
비와오장류부호동시사름이여늘더는엇지호야더갓치존귀호야현상녀선의웃듬이

되고나느엇지야이욕을당하며이붓그림을보는노그중더욱분하고더러온바는무
 수녀지불결지물을무릅쓰고날드러동뤼라하니내평심을부귀문중에금옥갓차자란
 몸으로엇지더의동뤼되리오내이제귀를씻고씨를갈아그더러움을세척고져하나엇
 지밋치리오하더니홀연다시구연이경왈더웅명이오온디무수홀녀지또홀화당치각
 의왕후부인이라분디날만못함이업거늘더고초를감슈하니이는다름아니라만드서
 사름의귀하고천함이것히엇지야나고모음에달님이라고디광실에놓히안졌스나
 모음이느즌즉제몸이느져지고금의옥식에귀히자랏스나모음이천홀즉제몸이천
 홀지니상청부인의더갓치존귀홀도모음이오무수녀의더갓치더러움도모음이라
 내이제외모의더러움을알고모음의더러움을모르고외모의존귀홀을흠모고모음
 의존귀홀을흠모치아나하니엇지혼암홀일이아나리오슌흐다내규중부녀로되악이
 세간에랑자야모침리적료공산에이갓치죄슈의몸이되얏스니이거시뉘듯이노하
 늘이하신바라홀즉허다세계에무수홀인성중엇지홀로나를위워하시며신수의공참
 홀이라홀즉명홀조물이엇지홀로공참홀명수를가져나를위워하시며신수의공참
 로부귀문중에스랑으로자라안하무인하고어려움을모르다가구가에드러간후일분
 부덕이업고다만교양홀런성을나타내여중첩을업시하고은총을독전코져하니이거
 시소위더럽고천홀모음이라내분디중영세죽으로비록남지못되고녀지되얏스나춤
 아구구홀편성으로룩룩홀잡념을두어중첩과은총을다도리오다만내몸을닥고내도

리를추려던디신명씩붓신킬배업고동렬덕국에견모치아니홀즉근지비록죄를찾고
 저하나엇지엇으리오취몽이깁혀스스로써듯지못하니금일이고초를밧음이실로저
 취홀바라선랑은진기티업노옥이오빙설갓흔지되라내일즉모합하야별당일하에춘
 성으로늘내이고산화암중에우적으로갑박하며유년항각에거져자리베니불에그고
 초홀이엇더하리오던되순환하야내오날보복을밧음이라그중싱각홀즉더욱모골이
 송연홀바는로랑의일이라홍녕홀물골로써리갓흔갈을넌히끼고반야삼경에창틈으
 로엿볼적에선랑의위티홀이경각에잇섯스니내장찾고보복을밧으리오하야무단이
 심서휘휘하더니홀연홀줄기셔늘홀바람이창틈으로드러와등잔불이붓치며창외에
 인영이섬홀하거늘황쇼제대경하야급히홀소리를지르고인하야괴석하니츠시임의
 스오경에밋쳤고서산의지느들이나무그림즈를음겨창외에빛최임이라위씨와도해
 쇼져의지르느소리예늘나씨야쇼져를붓들고곡절을무른대쇼제반향에바야흐로정
 신을추려모친을부르며왈모친아로랑이창외에왔느이다하거늘위씨저져왈녀
 는엇지황잡홀말을하느뇨로랑이엇더홀로랑이쇼제다시부답하고성각이혼홀하
 더니아시오또소리를질너왈모친아선랑은무죄하니죽이지말고로랑을물나치쇼져
 하거늘위씨이에축을들어갓가이다하며불너왈녀는잠을써여정신을추리라내어
 미여괴잇스니로랑이엇지이곳에왔스리오홀대쇼제인하야잠든즉놀나고센즉올며
 형용이환탈하고상셔에닐지못하더니일일은밤은후쇼제홀연모친을불너왈쇼녀의

명이심상호소쉬아니라이제죽어앗가음이업스오나우호로고당학말의쇠로호신부
 모를두고아래로구가에득죄호야출부지명을신설치못홀지라복원모친은녀호를싱
 각지말으시고존례를보중호쇼셔쇼네불호호와좁아슬하의청덕을손상호고죽어디
 하에눈을못감을가호는이다언필에다사호소리를지르며혼절호니위씨손을잡고올
 며불너알내너를만두호야위인이괴경민첩함에슈복을누려영화를볼가바랏다가
 부를그릇맛나이다경을당호니출하리몬져죽어모르고저호노라쇼제눈을떠모친을
 속시호며아미를썩그려알쇼네이제실호혼천식이호변근쳐진죽유유만스를도모지
 니즈러니와다만두가지소회잇스오니그호나호연왕이쇼녀를져바림이아니라쇼네
 연왕을져바림이오션랑이쇼녀를모해함이아니라쇼네션랑을모해함이니모친은중
 금이후로연왕과션랑의말을구두에언지말으쇼셔쇼녀의도라가호호으로붓그림을
 면케호시고그들재는쇼네죽은후만일황씨션산에못고저호신죽출가녀호의셴셴호
 일이아니오또호양씨분묘에장호라호죽비록구고의인호호심과연왕의관호호심으
 로쇼녀의신세를죽은이알아편장호나쇼녀호령이엇지붓그림자아나리오쇼녀호호
 자호던디간죄인이라호령비골이도라갈곳이업스오니복원모친은쇼녀죽은후신례
 를화장호야더러운색를세상에머르지말게호쇼셔말을다호호후회탄식호고다시
 호마디소리를지르더니괴식이섞어지고호호호나가련호다황쇼저의평성이여총명
 혜철이잠간조물의호리온배되야랑자호죄악을듯고저마다죽이고저호더니호연일

죠에의색을씻고빅옥이티를갈아두어마디말이천고현숙호부인이되고호호호니만
 일그뒤앗이업슬진대엇지던되잇다호리오이때위부인이이참경을보고가슴을두드
 리며올다가또호호절호니신혼이산란호야취중인듯몽중인듯일위부인이니르르크
 게쑥져알이불호호업축은얼골을들러나를보라호호늘위씨머리를들어보니이에
 모친마씨라놀리며반겨문알모친아이가서숨이니잇가춤이니잇가눈물이재암듯
 호야알쇼네슬하를떠는지암의스십여년이라용광이호상안중에암암호더니이제어
 디로조차오시니잇고마씨링쇼알네능히어미를아는다위씨오열알싱아육아호시고
 고아복아호시며출입복아호시니엇지모녀던류를모르리잇고마씨대노알내전성에
 무슨죄를지어일기혈속이업고너를만두호니아들호치미어삼세에말을호호치고스
 오세에침션을교호호며십여세됨애무위부호호고호양구고호음을쥬야로경게호은다
 름이아니라타일출가호야근허를이업손죽말호는재알마씨비록무호호나색을잘호
 르쳐님의집을창성호게호도다호죽명야디에의탁업호호이라도즐겁고영호호가
 호얏더니금일싱각호죽부졸업시너를나아일기혈막을인간에더저두고싱각호죽
 을감지못호고나자호죽또호니즐길이업스니숨호다네이제가풍문벌이혁혁호집호
 녀로비록구벌너축의허를됨이만호나엇지간혹호호성이지식을그릇쳐님의집을탁
 란호출알앗스리오네만일모녀지정을알진대엇지어미를육먹이며던류지중을알진
 대엇지조식을그릇치리오위씨올며발명코저호더니마씨더욱대노알이불호호무상호

거서던디신명을괴망하고이제다시제어미를속이고저하는도다하고막대들들어수
 십장을치니위씨얇음을견디지못하여크게소리하고쳐치니도화는넙히안져올고쇼
 제또흔회싱앗다라위씨정신을쳐몸을먼저보니장독이완연하고곳곳이얇음을
 이괴지못하여일변야속하고일변붓그러만히싱각같이상하다내숨이여스십년
 황던야디에무숨정령이이긋치분명하시며임의분명흔정령이게실진대엇지나를돕
 지아니하고도로혀이러듯고초를더하게하시리오이반드시내모음이약하여몽시
 어즈러움이로다하더니이옥고정신이흔흔하여눈을감음애마씨또니르러일기밖의
 로인을다리고외위씨를마르쳐와더거스첩의불초흔녀식이라던성이한약하여교훈
 으로지도치못할지니선성은그심장을곳쳐성품을변화하게하여주소셔로인이위씨
 를속시하더니랑중으로일기단약을내여주며먹기를지촉하더니위씨바다흔번싱김
 애흔연흔중이찌른느드시얇히고입으로조차오장이쏘다져류혈이림리흔저라위씨
 놀납고얇하이의이빌기를마지아니흔대그로인이소매속으로붉은호로병의감로슈
 를쏘다오장을일일이제쳐하야의구이다시넛코마씨를티하야왈복부에약흔병동이
 다만장부에잇슬뿐아니라골절에스못쳤스니맛당히씨를갈아독괴를쓰게하리라하
 고요잔으로조차저은칼을내여위씨의살을헤치고골절을긋어삭삭흔칼소리모골이
 송연하거늘위씨모친을부르며흔소리를내쳐지고쳐치니숨이라흔중과골절이오
 히러얇하정신이미란하고의식할흔하야운무중에떠러진사람긋흔지라츠일브러위

씨의성품이흔연변하야미스를당흔죽공겁하고왕스를싱각흔죽아득히숨긋하야일
 기심약흔녀지되니대범세간사람이엇지제허물을제모르리오마는혹련성이나약하
 야알고도못곳치며혹물욕에침혹하야짐짓곳치지아니하며혹괴승하야고집하는자
 도잇고혹공교하야미봉하는자도잇스니이러흔자는반드시놀나온일과익익흔경계
 를당흔후바야흐로모음을도르느니엇지후인의삼갈배아니리오츠시위씨의찰찰흔
 던성과쇼저의총혜흔조질로흔변허물을써쳐덕을닥금애도로혀출중흔인물이되엿
 스나다만쇼저의병세임의골슈에깃혔고위씨의장흔이흔연성하야모녀량인의참혹
 흔경상을도로혀불같이업더라래휘이소문을드르시고가궁인을만히보내샤진위
 를담지하고오라하시니가궁인이즉시츠히동에니르러보니쇼슬흔산중에황량흔도
 실이풍우를마리오지못하고가시울에산재깃드리고저른철아에검의줄이어리여산
 사람의거쳐흔모양이아니더라방중에드러감애거져자리베니불에위씨는신문음하고
 쇼저는흔흔하야봉두귀면으로쳐초이누엇스니가궁인은분디던성이연약흔재라함
 루하며모녀의두손을잡고탄왈부인이오날이고초를밧으심이무숨꼭절임을알으시
 느니잇가위씨츠히왈이는다로신의즈취라늘을모함코저하는재엇지그양화와보복
 을면하리오스스로왕스를싱각흔죽삼긋쳐아득하야꼭절을히득지못하노니그디의
 이긋치심방흔과이긋치무름이엇지더욱참과치아니하리오가궁인이키용위로왕부
 인의동달흔심으로일시과실을이긋치츠히하시니하늘이맛당히감동흔실지라잠간

고 초흔을 설워 마르쇼셔 엇지 드름애 부인 과 쇼셔 의 환희 심상치 아니하도하오니 무슴
 소쉬며 지금은 엇더하시니 잇가 위씨 슈피하야 탄알그디는 일실지인이나 조곰도 다름
 이 업스니 엇지 총곡을 숨기리오하 고인하야 모녀의 몽스를 일일히 말하며 장흔을 어루
 만져 눈물이 비오듯하거늘 가궁인이 경왕법상향상쳐는 오래면나흐려니와 귀신의 장
 혼은 혼적이 가지지 아니하는니 부인은 약을 발나 곳치쇼셔 위씨 할루왕신래 말부는 부
 모의 주신바라 비록 살을 버히며 뼈를 갈아 도은덕을 다 감지 못홀지니 하물며 구원야디
 에스 십년그리던 얼골을 몽중에 잠간 보고 혼번쳐 침애 용광이 묘연하 고 성음이 아득흔
 중명녕 혼교 혼과 의연 혼지정이다 만두어 곳장 혼을 머므러 마르치는 뜻을 생각홀지니
 엇지 참아 약을 부쳐 설니 업서 집을 다 힘이라 리오 가궁인이 차탄 불이하더라 초시황
 쇼셔는 도모지 슈작이 업고니 불로 얼골을 싸고 향벽하야 도라누엇거늘 위씨 다시 가궁
 인을 디하야 왈녀의 병세 실로 비경 혼중 몽죄더욱 괴이하야 상서롭지 아니하니 이근
 처애 후불 당고찰이 잇는나 혼번쳐 성기도하야 일분 지익을 쇼멸홀가하노라 가궁인이
 쇼왈여 괴셔 북으로 십여 리를 간 죽일키 암지 잇스니 명은 산화암이라 암중에 삼불대셔
 을 공양하 고 암 후에 십왕면이 잇서 십분 령 현하니 부인은 생각하야 하쇼셔 위씨 대희하
 야 가궁인을 보낸 후 향화지 축과 처단을 그 초와 도화를 산화암에 보내여 처성과 도하니
 라 초사가 궁인이 도라가래 후 쇠뎡고 위씨 모녀의 쾌히 기과하야 이전 위부인 과 석일
 황쇼재 아님을 일일이 주달하며 축연 할루하 고 도굴의 고 초흔을 지삼 말하야 샤되하 고

집으로 보내여 병을 도리하거늘 청하니 래 휘쇼왈 위씨를 위함이 엇지 너만 못하리오이
 제 비록 허물을 세드랏스나 황쇼셔의 출부된 신세를 장춧엇지하리오 짐짓 고초를 더겨
 배하야 연왕으로 하야 고프스스르 감동코져함이로다 가궁인이 샤래하더라 필경 연왕이
 엇지 감동하 고 하회를 보라

데스십삼회

선숙인이 산화암에 기도 하고

너도 시츄즈동에 만히 드러가다

仙淑人祈禱散花菴
女道士潛入楸子洞

각설 선숙인이 죄명을 신설하 고 려 총을 넘어 부중에 도라올애 상해기하 고 영귀함이
 극진하나 종시 황쇼셔의 더리 됴름을 범연이 녀여 즐거움이 업고 향상 초연 불락하더니 일
 일은 연왕이 정스당에 나아가 종일 묘무를 결쳐하 고 저문 후집에 도라와 량 천씩 뵈옵고
 바로 동별당에 니르러 관복을 버스며 술을 차자란 두의 황혼월식을 디하야 서로 수비를
 마실식란 성이 추연 무료하야 심분달당 혼흥치엄거늘 연왕이 곡절을 무른대 디왈다름
 아니라 상공을 위하야 잠간의 아하노일이 잇는이다 상공이 선량을 쇼성지렬에 두신지
 몇히에 그 지조 조식을 사랑하심이 극하시나 종시 비상 흥덤을 의구이 두샤 부부지정에
 협흔함이 적으시니 만일 다른 곡절이 업스즉이는 첩의 붓그리노바로 소이다 연왕이 탄
 왈 선숙인이 내집에 온 후로 환란을 당하야 그쳐 디괴이 혼고로 화축지연을 겨를치 못함

은비단국의일이만하한만풍정을싱각지못할뿐아니라실로선량의지개를일워주
고저함이러니금일마춤요딩과가중에큰일이업고내또흔한가하니량의말을드디여
숙인의십년절개를과하게하리라란성이대희하야련옥을명하야상공의침구를셔별
당에베풀나고즉시연왕을되셔선숙인쳐소에니르니숙인이마져죄덩후추연이
얼골빛을꽃처럼성을향하야단왈넷사람이봉우를사괘이미양심교를말하니무엇을
닐은심괴라함이뇨란성왈그모음을아는거시심편가하노라선숙인왈임의그러할진
대봉우의봉우됨이다만일편모음에달님이라엇지곳하여손을잡고여기를치며다정
한빛과설만한뜻을뵈인후봉위라하리오첩은드르니부부지의또흔봉우와일반이라
만일임석풍정으로써금슬종고의정의를론흔즉이또흔참괴흔일이아니리오란성이
쇼왕숙인의뜻을그만하면짐작할지라이는불과황씨의일을싱각하고쳐디겸연하야
함이나량의뜻을상공이알으시고상공의의향을량이아는니다시무엇을구하리오
나는년성이방랑하야장뷔흔번멀니함파흔번가이하는디천스만념이스스로평안
치못하니엇지세존이보살을디흔듯보살이세존을되신듯서로맞는지수년에일흔만
있고실상업는부뷔되리오말을못고랑량이웃거늘연왕이또흔미쇼하고우슈로란성
을잇쓸고죄슈로숙인의손을잡아루에오르니이때에동산가온디빅해만발하야이상
흔향내풍편에느부쳐집을돌넛고동편연덕의북은들이등근방휘를도흐애수풀의잠
든재는편편이늘나늘고산란흔뜻그림지섬돌에구을거늘연왕이표연이란잔을의지

하얏더니흔연환패소리징징하며일진의향이늘니는곳에윤부인이오다가화림압히
발을멈추고저저하는괴석이잇거늘란성이알고우으며당에느려마즈니윤부인이슈
습왈내정히심심하기월석을씩여랑을차자동별당에갓다가문을닫고인적이적연하
기인하야이리로왔다니엇지상공이림하심을알았스리오연왕이쇼왕부인이또흔이
러흔흥치잇더니잇가혹성이바야호로화월을디하야자리우에손이적음을흔하더니
부인이능히불속지킴이되다하고삼인이딩좌함에청슈흔즈질에일덤진애업서일
지부용이물우에소스듯월광을다도와동명해일흔자는윤부인이오련연흔티도와무
르녹은풍정이일지히당해이슬에저저화향을식고하야령릉최찬흔자는홍란성이오
양뤼출풍에흔들니고북은뺨은도해져녀비에반키하야철분아릿답고십분슈습흔차
는선숙인이라월광은조요하야그광치를돕고화영은산란하야그아릿다음을더하거
늘연왕이미미히우음을씩여왈조고로출신이춤소를맞나고효지득죄함이만흐나엇
지선량의쳐디곳흔재잇스리오내강슈셔선량을처음맛나어름곳흔모음이오빅설곳
흔지죄라일호잠념이업습을스랑하야화축지연을강박자아니하니이제뜻을맛초
아십년청루의일편홍덤을앗김이라엇지오늘도로허루명이귀에느러비상일혈이
증참됨을엇지괴필하얏스리오란성이탄식하고선숙인의팔을다리어소매를것고홍
덤을긋긋쳐왈이상하다더홍덤이여본디궁중풍속으로지금아니씩는재업스나세간
에장부된재흔가팔우의북은덤을말하고모음우의북은덤을모르니비록선숙인의탁

월흔절개나 만일이 흥덤이 아니련들우리 상공의 지괴지심으로 도엇지 증모의 투져흙
을 면하리오 선숙인이 붓그려소매를 느리와 팔을 무리오며 샐레알침이 몸을 다 가타인
에 게 밋음을 뵈이지 못하교 구구호호조각인 혈로 군조의 심호심을 발명코져하니 족
히 붓그러온 일이라 무슴말할 배잇스리오 윤부인이 기용 창찬하더라 인하야 비반을 나
와서로 즐기다가 야심 후부인과 란성이 각각도라 감애연왕이 화축을 물나고 보장을 느
리와 룽슈원앙이 노래를 련하교 운우양티에 취몽이 무르녹아 재벽북이 동동하교 동방
이 괴릭음을 세듯지 못하더니 선숙인이 묻져너러의 상을 정돈홀시스스로 팔을 굽어 봄
개 흥흔이 간디 업거늘 심중에 일변 놀나며 일변 창연하더라 홀연 창외에 기춤소리나며
련옥이 흥조각 처전을 드리거늘 퍼봄에 일슈 절귀를 씻스니 기시에 왈

婆娑碧城月 파사흔벽성산들이

湧於紫玉河 즈옥하에 소샷도다

謫降人間世 인 간세상에 적강하니

人間春似何 인 간에 봄이 엇더호고

선숙인이 미쇼하교 즉시 붓을 싸혀 화답하니 기시에 왈

多謝天上鸞 하늘우의 란도에 게만히 샐레하노니

替鵲轉星河 오작을 디신하야 은하에 드리노앗도다

春光祗自解 봄빛을 다만스스로 알고

不敢語如何 권디 여엇더라 말하지 못하리로다

선숙인이 쓰기를 못고 붓다 지는 소리에 연왕이 잠을 써야 문왈무엇을 쓰느뇨 선숙인이
슈습하야 처전을 굵초고져하거늘 연왕이 웃고 빼셔보니 란인의 글이 무비절창이라 연
왕이 선숙인을 보며 조롱왈출광이 엇더하나다만스스로 알고 말하지 못하느뇨 선숙인
이 흥흔이 만면하야 아미를 숙이 고디 답지 아니하거늘 연왕이 또 일슈시를 지어 그 뜻히
쓰니 기시에 왈

前宵皎皎月 어제 밤교 교흔들에

一天耿耿河 흐하늘의 경경흔은 하쉬로다

此時登樓客 이때 루에 올넛든손이

欲眠未眠何 자고져하나 잠드지 못하느디 엇지하리오

초시연왕이 쓰기를 못고 련옥을 주어 보내엿더니 아이오 창밖게 신신으는 소리나며 란
성이 웃고 드러오거늘 연왕이 짐짓 벽을 향하야 도라누어 잠든데하니 란성이 슈중 처전
을 내야 선숙인과 평론하야 왈 침이 비록시안이 업스나 세글을 의론홀진대 침의 글은 연
화괴상이 업서진짓신선의 구괴요랑의 글은 지서령룡하교 문장이 최찬하야 겸념제가
의 흥조격이 높고 상공의 글은 첩을 조롱하신 글이나 이는 호방흔 남조의 심상흔 레담이
라우리 항복할 배업슬가하노라하교 란왕이 웃거늘 연왕이 흥신하교 도라누으며 왈 란
등이 즈창조 화하야 짓거리니 한가흔 사름의 봄조름이 들지 못하도다 연이나 흥흔탈은

장족이라엇지시들의론하리오내맛당히우렬을당하리라란성의글은비록문장이아
 름다오나암상호의척잇서지분지티를도망치못하고선속인의글은정묘괴이호종육
 언미도하야별반아릿다온괴미잇고지어내글은도량이널너중첩을포장호의척잇스
 니엇지랑등의알배리오하고삼인이서로대쇼하더라츠시연왕이비록년쇼방장지시
 나만리풍진에남북을구치하야엇지풍한서슴의축상함이업스리오신괴호연불평하
 야상석에위돈하니부중상하의우민호말을엇지다괴록하리오일일은일기노패향락
 을메고입으로십왕보살을넘하며권선시주함을청하니량량이심란이안졌다가당에
 으뜸을명하야알파파의형식을보니반드시길흉화복을판단하는능은인가시부나
 를위하야호패를보라로패이에산을던지며패를내어왈금년귀문의길운이대흥하나
 잠간살이잇스니밤비제살케하쇼서선량왕연즉살을엇지제어하리오로패쌀을거두
 며왈슈명을빌고복록을구함은철성성군이웃듬이요형슈를막고희살을제어함은십
 왕보살이데일이니십왕연에불공을하쇼서하늘선량이복채를후이주어보낸후래
 메씨고왈제간의밋지못할바는무복이나상공환휘이제더러하사고지성은감련이라
 첩의전일가잇는산화암북체그장령협하야래회황상을위하야년년기도하시는곳이
 라암중에천하니괴만스오나첩이명일천히가상공을위하야기도하도라올가하느
 이다래대회왈내으즈를나홀제일즉음을위호고로미양불스를성각하나진괴
 치못하얏더니네정성이괴특하도다속히가치성하고무량한슈복을받원하라이일슈

인이쇼청련옥을다리고향화지축을又초와암중에나르니푸른외색리와쇄락호솔바
 랍이귀에니고눈에반겨왕스를성각하고잠간초창하야하더라교즈를암전에노흠애
 모든니괴창황연도하야속인의손을잡고혹반겨함루하며일장을짓거리거늘속인이
 면면이정회를편후목욕제하고십왕연에나아가향화다당을베풀고축원기도하거
 를못천후답상을우러러보니보개운변은뿔비에져졌고취화련랍에향연이살아져도
 장을새로괴호졸알너라다시관음연에니르러공경례불하고는근이심축후답상을
 봄애호조각비단이노엇고비단우히두어졸축원하는글이잇거늘집어보니축원에왈

弟子黃氏 六根 重濁 五慾 交蔽 此生惡業 功

德 蓮花臺上 七寶樓 罪 塵世因緣

佛前 餘生 諸佛菩薩 大慈大悲

코불전에도라와여성을못칠가하오니제불보살은대조대비하쇼서

선속인이그글시를봄애십분눈에니고또호스연이처창하야심상호축원이아니어늘
 지삼즈세보며모든니고를보아왕이논엇더호사들의기도발원함이노모든니괴일시
 합장하고할루고왈제간에불상호사름도만타이다여괴서남으로수심리를간즉일기
 동학이잇스니일흠은츄즈동이타수월전황성으로조차량위부인이일기차환을다리
 고와산하의일간초옥을의지하고잇스니경석이참혹하고신세쳐량하야거적자리와
 베니불에죄인의모양이라로부인은료찰찰호중다정동달하고점음부인은총명민

첩흔중안식이 절승하나 병입골슈하야 죽기를 처하니 그 곡절은 모르오나 대강불공
 축원하고 정회를 드른즉로부인은 말하되 평성적악을 만히 하야 이디경이 되얏스니 불
 전에 공을 드러죄를 속할가하노라 하시고 점은 부인은 도지말슴이 업고 다만 수항글
 을 써주며 불전에 이디로 발원하라고 루쉬영영하니 우리 불법은 저비지심으로 불상
 훈증성을 구제할지라도 와지성으로 축원과 도하니 이다 선속인이 이 말을 듯고 심중
 에 경왕이 엿지 황쇼제아나나 그 필적의 임의 눈에 나고니 고의 소전이 심분무의 하나 황
 씨모녀의 현속자 못함으로 능히 이긋지키 과함은 진실로 그 필적 못할바라 만일 그 과하
 야니 고의 소전과 곽홀진대 당초 죄악이 불과 날노인 연함이니 내 만일 구치아니면의 아
 니로 다 하고 도라와 때 때 불스치 성함을 고하니 다 형이 초일 못허연왕의 병세 점점 초
 도를 엿은 지라 선속인이 저기 침소에 불너와 황쇼제의 일을 생각하며 구홀방략을 경영
 하더라 차설 황쇼제 흔번히 물을새 침에 참괴 혼모음을 이기지 못하야 더욱 침식을 전폐
 하고 비록 모친과 도화라도 되하야 슈작함이 업스니 형히와 성각이 점점 지긋치사 위여
 일일지간에 여러 번 혼도 하더니 홀연 길에 늦기며 모친을 불너와 쇼녀의 실긋 혼목숨이
 스스로 생각건대 여러 날 지렁치 못할지라 구소회논임의 양달함이 잇스오니 저버리
 지마르시고 비회를 관역하샤 비제향슈하쇼셔 말을 잇고 홀홀 혼풍축이 엄연이 살아지
 니 위씨어희 업서 우름과 루쉬도 모지나지아나 하더라 각로와 상제 급보를 듯고와 보니
 떠러진 뜻이 넘져지향내살아지고 처야 전옥을 기을 슈업더라 위씨 그 유언을 생각하코

화장코저 하야 도화를 산화암에 보내야니 고를 종용이 청하니니 괴이 말을 듯고 또 혼경
 악하야 추조동으로 가는 길에 잠간 선속인을 드러와 보고 황쇼제의 악보를 전할대 선속
 인이 악연할루하코 생각하되 황쇼제는 총명다지 혼인물이라 다만 투기의 병이 잇스나
 만일 벽성선이 업슨즉 엿지 오일이 잇스리오내 평성에 적악함이 업더니 황쇼제로 하
 곱나를 말미암아 명명중원 혼이 되게하니 종금이 후로내 더욱 친할디 업스리도 하
 물며 모음을 돌너왕스를 추회하코 모츨리 뒤섞이 업스니 이노나의 죄악을 나타내코저
 흠이라 세간에 엿지 이긋흔 참절 혼일이 잇스리오하며 다시 별당에서 쌍륙치든 일과 서
 시로 심방하야 비록 거죽정답이나 다정이 슈작하든 말과 모양이 안전에 암암하야 할루
 의 연중 불상 혼모음이 압서니 수년 덕국의 기홀하든 일이라도 허일 종정근이 기흔지라
 올고저 혼죽 것하사름이 그간 사함을 조롱할거시오래 연코저 혼죽 잔인차악하야 무단
 혼루쉬히 음업시 웃기를 적시더니 홀연 란성이 드러오거늘 속인이 황씨의 일을 고하며
 할루왈 첩이 황쇼제 죽음을 슬허함이 아니라 벽성선의 살미구차함을 탄식하노이다 등
 시형춘으로 초로 인성이 아미를 식기하야 노나 뒤등잔에 다라드나 회로 영육이 일장
 춘몽이라 그하나 혼구원야 디에 원혼을 품어 처량이 도라가고 그하나 혼고디 광실에 부
 귀를 누려 여성이 화락할지니 인비목석이라 도엇지 우우량량하코 홀홀 불락하야 겸연
 혼성각이 업스리오금일 첩의 쳐디진 퇴무광하야 얼골 들꽃이 업스니 출하리 장조방을
 호축하야 두문벽곡하코 적용조를 조차진 루를 싣코 세럼을 물니 처여성을 보내고저하

張子房 赤松子

노라언필에스고감개호고괴식이쳐량호거늘란성이침음량구에탄왈이제황쇼저의
 병근을대강드르니그의심된재잇는지라첩이일즉빅운도스를조차일기비방을비호
 니소위대식진결이라대강하늘에닐곱괴운이잇스니바람과구름과비와이슬과셔리
 와눈과안기오사름에게닐곱성정이잇스니깃빔과노흙과습흙과즐거음과사랑흙과
 뭉위흙과욕심이니하늘의닐곱괴운이상박호즉지앙이되야절제밭구이고사름의닐
 곱성정이서로적호즉괴질이되야호흙을불동호느니이제비록조제치못호나쇼저의
 괴식흙이이증인가호노라선량이추언을듯고란성의손을잡고와란성아사름이지괴
 를중이알른그우락을곳치흙을위흙이라나의금일쳐디실로제몬져죽으니만못호니
 랑은저조를시험호야호사름을살녀두사름의신세를피이게호라란성이미쇼왈이
 장어렵지아니호나나의힝식이괴이호야상공이알으신즉잡됨을미타이녀이시려니
 와사름의스성이큰지라엇지호리오호니필경엇지가구호고하회를보라

데스십수회

선량이장신궁에글을올니고

쇼저미셜딩에향을살으다

仙娘獻書長信宮

小姐焚香梅雪亭

각설선숙인이란성의말을듯고집슈합루왈지아자도포숙이오이아자도포숙이라금
 일만일황쇼저불힝호즉첩이결단코괴산영슈에종적을금초아더러온지목을버슬지

鮑山叔 穎水

니랑은벽성선의안면을보아일인을살녀량인의신세를피게호라란성이패락왈이엇
 지다만숙인을위흙이리오상공이청춘지년에전정이만리곳거늘황쇼저로명명중원
 혼이되게호즉엇지아쳐롭지아리오다만천히가본후스성을짐작호리니랑은셀니
 산화암니고를청호야상약호되여쳐호라호더라차설초시황쇼저성식이쓰어지
 고여망이업슨지암의량일이라오히려옥안이여상호야잠든듯호거늘위씨춤아빈럼
 지례를힝치못호야쥬야로품에품고다만구곡간장이촌촌이쓰어지더니호연야심후
 산화암니괴와위씨를보고만히고왈마춤빈도의암중에량기도셔운유종적으로지
 내다가술업이신흙호야말호되비명으로죽은자는칠일너에약을쓴즉살닌다호기청
 호야왔스오니부인은시험호야쇼저를잠잔퇴이쇼셔위씨탄왈스자는불가부성이라
 엇지이러호일이잇스리오마는선스의지극호정성을감동호야이제잠잔퇴이리라니
 괴대희왈그도스논이에너도셔라던성이슈습호야비록시비차환이라도잡인을괴호
 느이다위씨왈이논말어렵지아니호도다호고죽시도화를불너가라호니괴박그
 로나가더니괴연량기도스를인도호야드러오거늘위씨축하에그얼골을볼애일기도
 스논미목이청슈호고거지단아호야규중녀조의티되잇는중안식이절티호고일기도
 스논취미호혈에춘광이무르녹고일쌍추파를별곳치홀녀정신이돌을호고풍정이혜
 힐호니진짓경국지식이오진제인물이아니라위씨일변놀나며일변스랑호야도스를
 향호야차사왈선성이잔명을불상히녀여이제루추호곳에이곳치니르니감사호은덕

을엇지다갑흐리오도시미쇼부담하고그청슈단아흔도시문져쇼저의압히나아가니
 불을들고그일골을보더니홀연괴석이참담하며일쌍츠후에루쉬듯거늘위씨피이녀
 여문왕선성은엇더흔사람이관티쳐량이죽어호소무쳐흔자를보고이긋쳐설위하느
 노그혜힐흔도시왕더도스는던성이인약하야비록일면지분이업스나동시청춘으로
 차악흔경계를싱각하고그리하느이다언필에우는도스를한념흐로밀며압흐로나아
 안져옥슈를들어쇼저의손을밧들고믹을이윅히보더니다시불을들고쇼저희중에
 손을너어전신을저세히만져본후츠히양안을믹믹히홀녀쇼저의일골을저삼슈시하
 고랑중으로삼기환약을내어위씨를주며왕빈되무엇을알니오마는더러흔경계를경
 험함이잇스오니아약을갈아입속에넛코동정을보쇼셔언필에몸을니러나가거늘위
 씨반신반의하야죽사그약을갈아흔번먹임에별로동정이업더니두번쌈애명문에온
 괴도라고세번먹임에홀연홀숨을길이쉬며도라놓는지라위씨대경신통하야도화
 를불너닐니왕네이제산화암에가야싸왔든량위도시잇거든쇼저의희성지망이잇습
 을고하고다시약을무러오라도해쇼왕부인이속으심이니그도스는진기도시아니로
 소이다위씨더욱대경왕그러면무엇이노도해다시웃고왕천비거죽피하느레하고숨
 어복애압전도스는선숙인이오뒤전도스는홍란성이러이다위씨당황무어하고그곡
 절을쳐듯지못하더라차시란성이황쇼저를처음보고도라가장탄왕내비록조감이부
 족하나황쇼저는부귀다복홀부인이라일시겁운을도망치못하야고초를잠간격그나

종금이후로현숙후부인이될지니엇지우리상공의복력이아니리오윤부인이문왕그
 병세는엇더하더노란성왕쇼저의병은병이아니라쇼위환장이니사람이런디음양지
 괴를밧아오장육취싱기니음괴성흔자는모음이악하고양괴성흔자는모음이길흔고
 로능히길괴를가져악괴를이괴는자는복육이창성하고대길흔귀인이라이제황쇼제
 길괴를가져악괴를제어하되악괴는진하고길괴밧쳐도라오지못하느초소위환장이
 라비록괴운과혈맥이잠간거뎛스나장부와골육이상함이업는고로첩이임의삼기환
 혼단으로써선던정괴를돌넛스나다른념레업슬그하느이다윤부인이쇼왕랑등이랑
 기도시되여능히본직을탄로치아니하엿느나란성이쇼왕일기도시심약하야하마스
 괴를루설홀번하느이다하고선숙인의우든모양을일일이고흔대숙인이일변붓그리
 며다시합루왕오륙년혁국됨도그또흔연분이라홀연일쇼에음용이적막하야은원이
 업서지고옥안이쳐량하야가련하느나란성은초경을당흔재니능히일항루쉬업슬쇼나
 란성이쇼왕나는본대우직흔사람이라위하야것흐로눈물내여간사흔티도를교식지
 안노라일재대쇼하더라차시태야태매황씨의악보를듯고오열왕황위구가에드러온
 후구고에게불쇼함이업고민첩흔성품과총혜흔저질을로신이이때것넛치지못하느
 중오히려일분기파하야수년고정을다시니을가하얏더니세간에엇지이긋쳐참절흔
 일이잇스리오하거늘연왕이괴석을못쳐화안유성으로량천씩고왕스성은런명이라
 세간에이긋흔재몇천줄알니잇가황씨를위하야싱각홀진대그허물을세치고죽음이

그허물을못쳐치고싱존홀디비치못홀지니황씨만일진기과하고죽엇슬진디비록
 도라가는흔이라도즐거울가하는이다언미필에일위미인이게하여슈디를살고빈
 혀를빠고복디청죄하거늘모다저세보니이에선숙인이라쳐연할루고돈슈왈첩이
 청루천인으로형실이밋봄이업서군조문중에환란이총성하니이다첩의죄라엇지
 홀로황씨를척하리오하물며황씨이재덕을다근현숙후인이되엇스나산중도굴에
 락일을못보고쳐량호심회외궁박호신세스스로병이되야죄잔호명이조석에잇스오
 니맛당히군조의슈련호실바라가중대스를첩이엇지감히당돌이말습하리잇고마는
 만일첩이아닌즉오날이업슬지라가량황씨로기과치못하고불형하드라하야도구원
 야디에유아지탄이잇서첩이실로몸들곳을알지못하려든이제왕스를추회하야착호
 디나아잔후홀로죄명을무릅쓰고명명중원혼이된즉첩이엇지양양저드하야중원의
 지목함을면하리잇고상공이만일황씨의죄를사하지아니하신즉첩이결단코피말입
 산하야쳐디얼을홀이업슬가하는이다래애그뜻을괴득이녀여죄우시비로선량을붓
 드러당에올니고탄왈네말이근축하야죽히군조지심을감동하려니와황씨의망
 이업스니엇지하리오숙인이피석디왈첩이비록고치아니호죄만스오나물에빠진아
 지미를건지지아님은넣성인의허하지아니하신바라스성지간에권도를피치아니하
 고란성과상의하고여쳐호일잇스오니비록선어진복숨을잠간돌니엿스오나
 죄명이무거워안으로심회축상하고거체루추하야बाट그로병을요섭홀길이업스오니

만일보호치아니하신즉살지못할가하는이다래야래메이말을듯고기용장탄왈너의
 들의심덕이이곳하니이내집의복이로다하고연왕을보며왈기과천선은고인의허
 호바라오즈저저치말고병회를위로하라연왕의침음디왈황씨모녀의잔혹호련성
 은일쥬일셔에곳치지못홀바니쇼지중시밋지아니하는이다래애정식왈네아비비록
 불스하나그른도로마르치지아니하리라년쇼호호히미양모음을넌니가저사름을
 포용홀지라엇지편협호말로화기를손상케하는요연왕이유유슈명하고명일추즈동
 으로서라하나라초시선숙인이침실에도라가성각하되내이제비록상공의관홍호신
 처분을엇엇스나황태후의진로호신엄교를장춧능히돌니리오하야반향을싱각하
 다가탄왈내임의련총을넌스와가인즈녀와무간이스랑호오시니오날내구구소회를
 나밧게양달홀재업스리라당돌함을모를하고말습하야보리라하고죽시일장상서를
 지어가궁인을인연하야래후씨주달하니그상서에왈

臣妾碧城仙 天龍 猥濫 區區情懷 太后陛下 百拜仰達
 心첩벽성선은련총을밋습고외람함을무릅셔구구정회를래후폐하씨빅비앙달하

음니이다첩은듯스오메기과천선은선왕의허하신바라첩의주모황씨총혜호련

性 敏捷 妾質 左右之人 嬖味 罪名 朝廷 登徹
 성과민첩호즈질로죄우지인을그릇맛나이미호죄명이조당에등철하얏스오나실

三綱五倫 犯罪 一時過失 婦女偏性 因緣 悠悠往事 妾
 로삼강오륜에범죄함이업고일시과실이부녀편성으로인연함이라유유왕스를첩

이또호감히말할배업스오나황씨이제새로덕을다가현숙하니아가고과실을추
悔 天地神明 黃氏 德 賢淑 過失 追
 회하니거의런디신명의도음을엇으려니와다만죄명이지중하고병입골슈야산
中土室 殘命 朝夕 急 伏惟太后 天地父母 顧念
 중도실에실났또흔잔명이조석에급하오니부유래후는런디부피라만일고념치아
 니신즉뉘다시도라보리오첩이본디청루창기로부모친척이업고철혈일신이표박
無依 福祿 分數 富貴炎殃 君子門中 猥濫 託身 飄泊
 무의하다가복록이분수에넘치고부귀지앙을불너근조문중에외람이락신하오니
一生 晏然 路柳墻花 慙愧之目
 비록일성을안연이지내나로류장화의참리지목이만흐려든가물며풍파환난이첩
主母 九原夜臺 冤恨 揚揚自得 處地 艱危
 으로말리암아주모를내쳐구원야타에원혼을품게하고양양조득하야처디의얼을
 흠을모르온즉비록스스로붓그림지아니하나오날날신첩의구구정원은실로황씨
身勢 臣妾 賤身 尊嚴 聖朝 德政
 를위함이아니라스스로신세를설위함이오또호신세를설위할뉘아니라성조덕정
 을일흐샤화과의감상함이잇슬가함으로이다신첩이천신으로존엄함을모르읍
寵愛 和氣 減傷 細瑣事情 煩達 唐突 罪 萬死無惜
 고총의호심을밋스와제쇄스정을이긋치번달하오니그당돌흔죄는만스무석이로
 소이다

래휘람필에진국공주를보시며단왈이엇지괴득지아니리오이를봄애위씨모녀의일

이더욱동흔하니그고초를받음이당연치아니할쇼나공주왕선랑이진국에잇슬제쇼
 녀와동침동처하와무잔함이극진하니스식지간에도황씨를원망함이업고다만홀홀
 불락홀홀음이니이법도잇는가중에교훈으로자라난스족부녀에도업슬가하느이
 다래휘지삼칭찬하시며다시가공인을향하샤왕로신이엇지선랑의청하느바를듯지
 아니하리오네이상소를가지고추조동에가위씨모녀를죄인후내말을전하라이또흔
 숙녀가인을모함하야음녀투부를문들고저하니하늘이오허려무심하샤녀의모녀를
 금일시지살녀두심이라수월도실의스소호고초를엇지감히원통타하리오래산또흔
 죄악을샤홀뜻이엎더니선숙인의안면을아니보지못하야이제특별이집으로도라감
 을허하노니리두를조심하야전혀물을김게하라하야라가공인이슈명하고추조동으
 로가니라초시황쇼제랑의구함을힘납어다시회성하야초정신이남애위씨단왈
 네금일엇지하야살아남을아느냐평성의슈인으로아든재오날도로허은인될줄알았
 스리오호고홍선랑이도스로변복하코왔든말을일일이전호대쇼제늘나코붓그러
 위도로허말이엎더니가공인이또와선랑의상소를뢰이고래후의성지를전하니위씨
 모네실성오열하야감뒤여우하며가공인의손을잡고탄왈우리모녀의살뎀을버혀허
 물을김고려력을싸혀죄악을헤고저하니로김지못하코헤지못할지라출하리합연
 이죽어모르고저하니엇지엇으리오하며인하야숙인파란성이도스의모양으로와쇼
 저를구하든일을말하야알제간에선숙인또흔자는런성을엇더케두고났기더러하게

착하며우리모녀는던성을엇더케두고났기이러하게악호노왕스를싱각호죽스스로
 절절이분하고곳곳이달아비를가르고간장을내어보고시부나이는다로신의죄라
 실로녀의본습이아녀늘어미를잘못맛나전정이만리곳흔녀조로천고루명을무
 립쓰게하니이무습모양이노그되는대후량씩도라가양달하라신첩의모녀는죽어
 맛당호복습이라싱활호신은덕을납스와다시던일을보고집에도라가오나실로보담
 홀말습이업는지라다만여성을삼가다시우치말가하는이다하라언미필에받기요
 란하며각로와상제연왕을인도하야오거늘부인과쇼제창졸에아모리홀줄모르더니
 연왕이방중에드러서며좌우를봄에네벽에저즌혹은덩이덩이떠러지고거적자리베
 니불에괴석이수참호중위씨남루호의상으로쳐초이안젓거늘연왕은군치라슈미봉
 안에추연호야압히나아가인스하니위부인이더두할루하며참괴무언호지라연왕이
 추연왕쇼제착하지못하야쳐첩을감화치못하고부인씩이우흠이이에밋스오니참괴
 호도소이다위씨추연을드름애호로의붓는불을얼골에씨우는듯호훈이만면호야간
 신이답왕연은이홍대호시고신명이용서호샤승상을다시이곳치회오니무습말습을
 호리오연왕이쇼왕유왕스호터진물호스오니엇지죽히싱각호리오인싱빅년의
 고락이상반이라이곳치고초호심이장찾기거움을누릴장본인가하는이다엇지듯스
 오니쇼교의병제십분침중호다하더니엇다하니잇가위씨바야호로베니불을거드치
 며호러처왕무비조취라이곳치무르시니감격호도소이다연왕이눈을흘녀쇼저를보

니월티화용이십분쇼삭호야피골이상련호고천식이미당호중성각업시누엇거늘연
 왕이갓가이나아가옥슈를잡고진탁호야보니쇼제일쌍추파에소리업는눈물이심호
 처호르는지라연왕이개연정식왕호성이비록불민호나고셔를놓고고인의말습을드
 렛스니장부홍금이추촉지아닐지라엇지왕스를괴록호야재거슬도모치아니리오부
 인의복음으로이제허물을써치시니이호성의복이라부인이본가로부피게시고구
 가로구피게시니맛당히관심호야병을도섭홀지라엇지심회를초조호야더디경에니
 르시노쇼제다만슈루부담호거늘연왕이황상셔를보아왕령미의병제이러호중이곳
 이루추호야도섭호기어려울지니대후씩이뜻을알호고귀가흠이가할가호노라상
 제왕야사대휘성지를느리사환가흠을허호시니이제장찾조친과누의를다려가라호
 는이다위씨바야호로말을내어왕이노다승상의주신배오선숙인의덕이라이덕보원
 은성안도못호신바여늘이제선숙인은은혜로형원을감호하며임의관성과호치와녀의
 의잔명을구호고다시대후씩상셔호야사명을엇으니로신의모네무엇으로그뜻을감
 호리오연왕이미쇼왕선홍량랑이쇼저를구흠은임의드렸스나대후씩상셔흠은밋쳐
 아지못호바라다부인파쇼교의희심전의호신바이라엇지다만선랑의공을칭송호시
 리오대범사름이선심을호변먹은죽길시성기고길시성긴죽 돕는재만흠은던디감응
 지린가호는이다하더라차설황각되사명을엇음에다시성중데턱을슈소호고부인과
 녀의를거느려입성호니황쇼제또호부모를조차본부이니른후로더욱참괴무면호야

외인을디치아니하고황부후원의일기산명을치우고잇스니그명조일홍은미설명이
라경개유슈야외인이니르지아니하고로쇼제다만수기시비를거느리고쳐야
지분을단장치아니하고상두에떨너연을퍼긔코향로에분향야잡념을물니치고여
성을보내랴하니필경엇지되고하회를보라

데스십오회

래 메상 춘원에 꽃을 보고

太孃看花賞春院
蓮娘倚瑟唱蠻歌

련랑이비파들의지야만가를불으다

각설연왕이황쇼제의입성함을듯고즉시황부에니르니위부인이던도이마져쥬찬을
나와디접하고두곳김을말지아니하고거늘연왕이또한그기과함을단복야술이수비
에지남애육면춘풍에취흥을써여왕쇼제금일부중에니름은실로쇼교의병을못고저
힘이라이제어디잇느니잇가위부인이재로이슈괴야알녀의병으로련성이변하야
사름을보기를슬허하고로후원의적은명조를슈소하고잇느이다연왕이미쇼하고
즉시사비로길을인도하고라하고미설당을차자갈시수곡분장을지나총총셔디에화목
이성림흔중쌍쌍빅학이북음에잠드릿스니진짓부귀지상의후원일니라화림속으로
수보를헛하니취죽청송이울을일윳고창티홍선에이적이회쇼야수플의재소리와
대떨기의찬바람이의연이산림괴상이잇서정신이청량하고물욕이담박하야진짓물

외의별경이오홍진계아니라죽비를두드리니일기시비나와문을열거늘연왕이
바로당전에니르러봄애수간초당에로렴을드리엇고삼등에게악기두흔중전후
좌우로홍분미수십슈를심어씻이란기하야그진향풍이습인하더라연왕이당상에올
나침문을열매황쇼제무심이안졌다가놀나니러맛거늘연왕이방중을도라보니아모
것도업고다만셔안에일권서책과일좌향좌노엿는디쇼제수척흔얼골에운민이쇼슬
하고셔못은의상에병식이초쾌하야도장보살이갑진을벗고요디선지환골랄티흔듯
팔조출산에풍정이살아지고일쌍츠퉂파에물욕이청정하야돈연이연화괴상이업거늘
연왕이좌에안즈며쇼왕후성이병든황쇼제를문병코저왔다니길을그릇드러승당도
관에도다하고인하야쇼제의옥슈를잡고란왕금일황쇼제셔일황쇼제아니니금일
양창곡이엇지셔일양창곡의심수를두리오이제쇼제의거쳐함을봄애쇼제의먹음은
뜻을알지니이또흔부인녀조의합당흔도리가아니라신해인군을섬김애오히려제몸
을임의로못가지거늘하물며녀저출가하야스싱고락은녀필중부하니엇지제뜻을고
집하야쇼요를임의로하리오쇼제이제왕스를츠퉂회하야스스로벗그려인간진루를넋
고저흥이나초소위하물을벗그려그름을지음이라구가와가부를말니하고내몸을쇼
결코저흥은승니도스의패륜하느풍속이라쇼제의북음으로이뜻을돔은반드시후성
을의심함이아닌죽왕스를혐의하야구구이뜻을굽혀후성의가인됨을벗그림이니엇
지흔하물을써두고흔하물을지음이아니리오황쇼제함루척연왕첩이목석이아니오

니엇지상공을의심하며왕스를할감하리잇고다만골슈의김흔병이완인되기무과하
 니비록건즐을बाट드러그직분을다하고저하나실로강작할방략이망연하오니복망상
 공은첩의쳐디를공축히보샤그뜻을용서하시고그몸을허하샤제스를닛고이곳에이
 곳치쳐하야다시인류에참여하는붓그림이업게하쇼셔연왕이정식하고물너안져왕
 후성이흔암하야부인이기과흔가하엿더니이제봄애구슴을브리지못하얏다부인
 이빅슈량당의만년쇼교로교흔을모르고스랑으로자라교앙흔뜻이다만내몸을알고
 유순흔도리의일호조심하는싱각이업서진퇴형지를뜻되로하교저하니이무슴도리
 이노쇼제아미를속이고답지못하거늘연왕이몸을닐며왕부인이만일후성을가부로
 알진대수히와구고의기드리는뜻을위로할지어다하더라차설츠시는모춘가절이
 라시화제풍하교국래민안하야장안만호에풍악이차아지고남딕동성에화뤼랑차하
 야번화흔물척과호랑흔풍광이사름의모음을동하니일일은연왕이조회를파하교도
 라와래메씨외읍고쇼왕근일춘기화창하교화뤼방장하오니모친은엇지후원에오르
 샤뵙구경도아니하시느니잇가래메흔연왕내또흔이뜻이잇더니즈의말이하으니
 흥치를돕는도다명일제부제랑을다리고후원에올나늘고저하노니왕현부를다려오
 게하랴연왕이즉시수기시비와쳐교를왕부에보내여명일후원노름에래메부르시는
 뜻을말흔대왕쇼제할일업서감이스양치못하교담장시복으로구고씨외을시유순흔
 티도와공근흔거동이엇지전일보든왕쇼제리오래야래메스랑하교깃거흔은날으저

말고상하비복이도로혀늘나고칭찬흔을말지아니하더라래메집슈탄왕하늘이우리
 고부를불상이보샤금일이잇스니신인을티흔듯화괴만실흔을써듯지못하리로다래
 예왕사름이허물이잇슨연후전정을힘쓰느니현부는종금이후로부덕을가면하랴대
 범부인은유순정일할씩름이니다른무슴덕이잇스리오왕쇼제구고의명하심을듯고
 물너와즈기침실에니르니란성과선숙인이오거늘쇼제심분슈괴하거문져선숙인을
 디하야알나는천다간기인이라랑의지구흔정성을힘납어다시고문에드러와서로이
 곳치보니엇지붓그럽지아니리오숙인왕이는다첩의불민흔되라부인의말슴이이에
 밋치시니첩이더욱치신할곳을알지못하느이다말이못지못하야유부인이또와셔쇼
 왕유왕시일장춘몽곳거늘엇지재로이말할배잇스리오좌상에신인이잇스니서로
 한훤지례를배를라왕쇼제쇼왕란성의성명을우뢰곳치드릿스나나는저자지얼로인
 스를페흔사름이라이제봄이엇지서어치아니리오란성왕첩이또흔표박종적이오풍
 파여성이란산중도동괴슈중원흔이엇지다시귀문에드러와부인이하중첩지렬에참
 예할줄알앗스리오왕쇼제츄파를흔녀자로란성을보며심중에차란왕이논바야호로
 소위경국할조식이오출중흔인물이로다하더니유부인이미쇼하교란성을그르쳐며
 왕쇼저를향하야왕도스스논부인괴숙면이아니나왕쇼제슈괴하야선숙인을보며왕
 랑위도술을빚내여쓴혀진목슴을부질업시살니니고히인성이그감샤흔을알지못하
 노라란성이랑연쇼왕빈도는운유중적이라부인괴은원이업스오니다만술업을저랑

世尊

코저함이 나더 인약호도스를 다리고 인간정근을 파달치 못하야 초창호괴석 파수항루
 슈에로부인의 의아호심을 돕스오니 종적을 곱초노라 빈도의 창황함을 어이 알으시리
 잇고 황쇼제가 말을 뜻고 추연할루함을 세듯 못하니 선숙인이 또 호쳐연기 용알금일
 좌석에 우리량인과 량위부인이 호뜻으로 모혔스니 무슴정담을 못하야 이호호말슴으
 로 심스를 겨동하리오 란성이 쇼왈이 느천고 미시라 부녀의 두근근다 마다 잇는 바 오혀
 물을 세듯 침은 사름마다 못할지니 이제부인이 파도가 범연하사 괴운이 저상고 세렵
 이담박하야 임의 추즈동중의 생각호혜준이 되얏거늘 다시 미설당상의 청정호음음을
 호추고져하시니 엇지과호신심각이 아니시리 잇고하니 이는 란성이 황쇼져를 겨동하
 야 그관심호기함이 러라 아이오연왕이 드러와 량부인과 량랑을 뒤하야 명일대메후원
 에 씻구경호실의 향을 말호고 왈 부중음식이 신신치아니하니 부인과 량랑은 각각일과
 식별찬으로 호호치를 돕게하라 제랑이 응락하더라 차설연왕부중에 일좌후원이 잇스니
 일호은 상춘원이 라원중의 괴화이 초와진금괴석이 황성중거같이 오일기별원이 잇스
 니 명은 중향각이라 란성이 연왕씨청호고 량랑의 처소를 삼앗더니 익일연왕이 제부인
 제랑으로 모친을 피서상춘원중향각에 연석을 비설호후래메 주석하야 덩좌호후연왕
 이당간호포로슬하에 시좌호고 윤부인 황부인과 호란성선숙인이 좌우로 시좌하니 량
 랑은 미가호쳐지라 석상에 참예함을 슈습하야 방안에 술고나 오지아니하니 라설과와
 손야차련옥쇼청즈연도화모든시비또호좌우에 시립호엿더니 초시원중의 빅해만발

賞春園 兼香閣

하야 일진춘풍이 화향을 불어 자리에 마득하거늘 대메웃고 제부제랑을 보며 왈 제잔빅
 해그아름답기는 비록 일반이나 그스랑함은 다 각각이니 제부제랑은 무슴꽃을 취하느
 뇨소견티로 말하라

尹夫人 沉吟對曰 眞靜 姿質 十分天然 巧飾 蓮花
 윤부인이 침음티왈 정정호조질이 십분 천연하야 교식함이 업스오니련화를 사랑하

느이다 황부인왈 목단은 화중왕이라 부귀번화호괴상을 띄엿스니 목단을 사랑하

느이다 홍란성왈 일지창외에 춘광을 압두호고 황혼에 암향이 담박호중아릿다오니

홍미화를 사랑하느이다 선숙인왈 담담청향이 속루를 버셔나 일점호진이 침범치 못

하오니 슈선화를 사랑하느이다 대메호연대쇼호고 좌우로련랑을 청하야 오니 문왈

랑도또호뜻티로 말하야로인의 쇼견을 돕게하라 랑은 무슴꽃을 도화하느뇨련랑이

슈습부담호대대메지습무르니련랑이 미쇼왈첩은 남방사름이라 남방에 도화만호

고로도화를 사랑하느이다 란성이 쇼왈시전에 운하되도지요요여작작기화로다지

즈우귀여의기실개라호엿스니련랑은 진실노뜻을 말함이로다 일좌대쇼하니련랑

이홍훈이 만면하야도각중으로 드러가더라대메다시련옥을 보아왈 너는 무슴꽃

이도르노옥이 쇼이티왈 호화도티이다대메왈 엇지니름이뇨옥왈 멀니브라봄애더

옥분명홀이로소이다 太嬰曰 대메왈네말이다 活潑 옥활발하니 平生 평생을 번화하니 繁華 라쇼청은 무슴
 빛을도화하니 靑曰櫻桃 노청왈잉도빛이도터이다 太嬰曰 대메왈엇짐이 靑曰春光 노청왈춘광을 舍蓋 할추야전
 허정신이 열미에잇슴이로소이다 太嬰 대메칭찬왈네말이온자하니 蘊藉 후분이 後分 무궁하니로
 다 紫鸞 연은 무슴빛이도터노연왈봉선화도터이다 太嬰笑曰 대메쇼왈너는 太嬰 비록 소견이 太嬰 겁지못
 하나일성이 一生 안穩하니 過分 과분함이 太嬰曰 엇스리로다 太嬰 대메도화를보아 桃花 왈너는 太嬰 무슴빛이도
 호노 花曰粉 화왈분빛이도터이다 太嬰曰 대메왈엇지 花曰 날음이 花曰 노화왈혼나 各色 무에 太嬰 각식 太嬰 빛이 太嬰 더 太嬰 옥도터
 이 太嬰 대메왈네말이 太嬰 장번화하니 後分 후분이 華麗 화려하니로다 太嬰 대메손삼랑을 太嬰 향하니 太嬰 왈
 삼랑은 三娘 무슴빛이도호노삼랑왈야차는 三娘 강남어 夜叉 뷔라 江上 강상의 蘆花 로화도터이다 太嬰曰 대메왈신
 세 勢 잠 清閒 잔청한하니 太嬰 갈대는 太嬰 소리나 太嬰 눈풀이라 太嬰 일희이 太嬰 세상 太嬰 에 太嬰 나 太嬰 라 太嬰 리로다 太嬰 대메도설파
 드려 太嬰 왈 太嬰 파파는 太嬰 무슴빛이도호노설파물나 太嬰 듯고 太嬰 머리를 太嬰 흔들며 太嬰 눈살을 太嬰 찡 太嬰 흐려 太嬰 왈도터
 니 太嬰 무엇이도호노잇고 太嬰 늙어 太嬰 갈수록 太嬰 세상이 太嬰 귀치 太嬰 안터이다 太嬰 려 太嬰 옥이 太嬰 웃고 太嬰 크 太嬰 게 太嬰 소리 太嬰 왈세
 상은 太嬰 말하니 太嬰 지 太嬰 말고 太嬰 빛이나 太嬰 의 太嬰 론하니 太嬰 쇼 太嬰 셔 太嬰 설 太嬰 파 太嬰 쇼 太嬰 왈 太嬰 철 太嬰 모르는 太嬰 소리 太嬰 말라 太嬰 의 太嬰 론이 太嬰 병이니 太嬰 라
 남을 太嬰 의 太嬰 론 太嬰 할 太嬰 죽 太嬰 남도 太嬰 또 太嬰 혼 太嬰 너 太嬰 를 太嬰 의 太嬰 론 太嬰 하니 太嬰 라 太嬰 옥이 太嬰 우 太嬰 음 太嬰 을 太嬰 참 太嬰 지 太嬰 못 太嬰 하니 太嬰 도 太嬰 라 太嬰 선 太嬰 디 太嬰 설 太嬰 파

笑曰 쇼왈바른말은 兒子 듯기 兒子 슬 兒子 혀 兒子 는 兒子 도 兒子 다 兒子 하 兒子 거 兒子 늘 兒子 일 兒子 채 兒子 절 兒子 도 兒子 하 兒子 더 兒子 라 兒子 대 兒子 메 兒子 다 兒子 시 兒子 연 兒子 왕 兒子 을 兒子 보 兒子 아 兒子 왈
 으 兒子 는 兒子 무 兒子 슴 兒子 빛 兒子 이 兒子 도 兒子 터 兒子 노 兒子 연 兒子 왕 兒子 이 兒子 웃 兒子 고 兒子 디 兒子 왈 兒子 쇼 兒子 즈 兒子 는 兒子 세 兒子 간 兒子 백 兒子 화 兒子 다 兒子 도 兒子 호 兒子 니 兒子 원 兒子 건 兒子 대 兒子 춘 兒子 풍 兒子 호
 蝶 덥이 蝶 되야 蝶 이 蝶 씻 蝶 더 蝶 씻 蝶 다 蝶 구 蝶 경 蝶 하니 蝶 다 蝶 스 蝶 랑 蝶 홀 蝶 가 蝶 하니 蝶 이 蝶 다 蝶 슈 蝶 연 蝶 이 蝶 나 蝶 그 蝶 중 蝶 에 蝶 우 蝶 려 蝶 장 蝶 단 蝶 이
 잇스 兒子 니 兒子 쇼 兒子 지 兒子 다 兒子 시 兒子 평 兒子 론 兒子 하니 兒子 다 兒子 려 兒子 화 兒子 는 兒子 청 兒子 약 兒子 하니 兒子 구 兒子 중 兒子 부 兒子 인 兒子 의 兒子 본 兒子 식 兒子 이 兒子 오 兒子 목 兒子 단 兒子 은 兒子 화 兒子 려
 하니 兒子 부 兒子 귀 兒子 지 兒子 상 兒子 의 兒子 쇼 兒子 교 兒子 로 兒子 부 兒子 귀 兒子 지 兒子 상 兒子 의 兒子 안 兒子 희 兒子 기 兒子 상 兒子 이 兒子 오 兒子 홍 兒子 티 兒子 화 兒子 는 兒子 일 兒子 년 兒子 춘 兒子 식 兒子 을 兒子 독 兒子 전 兒子 하니
 아 兒子 릇 兒子 다 兒子 온 兒子 터 兒子 도 兒子 외 兒子 무 兒子 르 兒子 녹 兒子 은 兒子 단 兒子 장 兒子 으 兒子 로 兒子 는 兒子 즈 兒子 가 兒子 지 兒子 는 兒子 창 兒子 전 兒子 에 兒子 그 兒子 릇 兒子 즈 兒子 를 兒子 희 兒子 롱 兒子 하니 兒子 주 兒子 인 兒子 의
 스 兒子 랑 兒子 홀 兒子 을 兒子 요 兒子 구 兒子 하 兒子 고 兒子 늙 兒子 하니 兒子 지 兒子 는 兒子 담 兒子 머 兒子 리 兒子 를 兒子 엿 兒子 보 兒子 아 兒子 비 兒子 라 兒子 보 兒子 는 兒子 자 兒子 로 兒子 쇼 兒子 혼 兒子 단 兒子 장 兒子 케 兒子 하니 兒子 슈
 선 兒子 화 兒子 는 兒子 청 兒子 고 兒子 개 兒子 결 兒子 하니 兒子 야 兒子 청 兒子 향 兒子 이 兒子 방 兒子 달 兒子 밤 兒子 개 兒子 루 兒子 설 兒子 치 兒子 아 兒子 하니 兒子 쇼 兒子 즈 兒子 는 兒子 슈 兒子 선 兒子 화 兒子 의 兒子 담 兒子 홀 兒子 을 兒子 스
 랑 兒子 하 兒子 고 兒子 홍 兒子 미 兒子 화 兒子 의 兒子 요 兒子 호 兒子 홀 兒子 을 兒子 뒤 兒子 워 兒子 하니 兒子 이 兒子 다 兒子 홍 兒子 랑 兒子 이 兒子 쇼 兒子 왈 兒子 춘 兒子 풍 兒子 이 兒子 호 兒子 랑 兒子 하니 兒子 초 兒子 목 兒子 을 兒子 밍 兒子 동
 하니 兒子 맛 兒子 당 兒子 히 兒子 고 兒子 혼 兒子 빛 兒子 을 兒子 토 兒子 하니 兒子 텨 兒子 디 兒子 간 兒子 번 兒子 화 兒子 지 兒子 기 兒子 를 兒子 도 兒子 을 兒子 지 兒子 라 兒子 엿 兒子 지 兒子 쇼 兒子 슬 兒子 담 兒子 박 兒子 혼 兒子 슈 兒子 선 兒子 화
 를 兒子 효 兒子 즉 兒子 하니 兒子 방 兒子 달 兒子 간 兒子 풍 兒子 정 兒子 으 兒子 로 兒子 군 兒子 즈 兒子 의 兒子 은 兒子 근 兒子 이 兒子 스 兒子 랑 兒子 홀 兒子 을 兒子 도 兒子 으 兒子 리 兒子 잇 兒子 가 兒子 래 兒子 메 兒子 대 兒子 쇼 兒子 왈 으 兒子 지
 아 兒子 모 兒子 리 兒子 랑 兒子 성 兒子 을 兒子 쇼 兒子 롱 兒子 코 兒子 저 兒子 하니 兒子 엿 兒子 지 兒子 전 兒子 일 兒子 말 兒子 과 兒子 이 兒子 췌 兒子 치 兒子 상 兒子 좌 兒子 하니 兒子 노 兒子 우 兒子 리 兒子 일 兒子 즉 兒子 옥 兒子 려 兒子 봉 兒子 하 兒子 에
 잇 兒子 슬 兒子 제 으 兒子 즈 兒子 의 兒子 나 兒子 히 兒子 불 兒子 과 兒子 룩 兒子 철 兒子 세 兒子 라 兒子 집 兒子 뒤 兒子 언 兒子 터 兒子 에 兒子 을 兒子 나 兒子 동 兒子 모 兒子 를 兒子 모 兒子 아 兒子 씻 兒子 싸 兒子 홀 兒子 하니 兒子 는 兒子 말

이나는 일흥난 뜻이 아니며 취치 아니 할지니 서호미화의 담박호절개 로히당화의 조
 으는 티도를 겸 후바야 흐로 일흥난 뜻이라 하더니 이엇지 홍미화를 낼음이 아니 리
 오일로 본즉 으의 평생 사랑하느 뜻이 홍미화인가 하노라 연왕과 일좌대쇼하더니
 홀연란간 아래 집형이 쇼리나며 대애미미히 웃고닐니 왈 부인은 엇지 독락하느 노하
 고안져 웃는 곡절을 무른대 대애일이 고하니 대애쇼왈여러말이다 아름다오니 죽
 히그기상을 볼지라 부인은 무슴뜻을 사랑하느 노대애왈첩은 본디 시골 늙은이라 올
 밋히호박을 심어 싹을 보며 열음을 따먹으오니 호박 싹을 사랑하느이다 대애쇼왈용
 열흔늙은이 말도 또호용 열하나 호박은 냉클진 풀이라 복력이綿遠太嬰曰
 상공은 무슴뜻을 사랑하느니 잇가 대애쇼왈우리 두 늙은이 쇠로지년에 영화만전
 하야 으외 제 부제랑을 다리고 빗난일이 안전에 득하느이 거시 뜻이라 범상한인
 간 박화들 엇지 족히 말 할배 리요
 아이오제 부제랑이 음식을 드릴시 율왕 부인은 본부로 하야 오고란성은 란성부로 하
 야 오고선숙인은 연왕 부로 초릴시 무비진숙찬이 오희귀호상 품음식이 더라이우고
 날이 저물고술이 수비에 지남에 대애몬져너러나 왈 불청지각이 오래안져 부인과 제랑

의 패흥될가 하노라 하고나가 거늘모다 당에느러지송하고다 시좌에안져연왕이미쇼
 하며 량을 보아 왈내 드름에 강남풍속이 음식을 주장하야련하에유명호곳이라 랑등
 은 만일민첩함이잇슬진대 엇지소담호음식으로 강항풍미를 빗내여셔양주석에미진
 호흥치를 다시 돕는 슈단이 업스리오하더니 연미필에선숙인이미쇼하며쇼청이일기
 비옥반에로어희를 밧드러셔샅에 늦게늘모다 봄애눈 빗호흔성선을 실곳치써러나
 히참치함이 업스니 슈단이 정묘하고안목이 현황하더라 연왕이대희왈이느진실로불
 시지쉬로다 이엇지 강남은 설회아니나내일죽드름애은설회는련하에업는음식이라
 용강로어와병쥬련엮되아난죽문드지못하다하더니 선숙인의기경민첩함이엇지이
 에밋칠줄아랏스리오하거늘란성이호연불쾌하야 율왕 부인을 뒤하야 탄왈세간에
 밋지못할바는덕국지간이로소이다첩이선랑과동시청루천중으로지그상종하야귀
 문에드러온후일호식과지심을 돕이업더니금일엇지슈단을즈랑하야 상공의뜻을맛
 초아첩을 무척고져함을 알앗스리오연필에노기발말하거늘연왕이미쇼왈란성은성
 내지말라우연호일을엇지유심이척망하느노선숙인이무안하야발명왈이느이에상
 공이란성의거동을보고져하샤첩과약속하신바니첩이엇지현능코쳐함이리오란성
 이더욱불쾌왈첩은본디불민호재라엇지상공의의향을미리짐작하리오다만일과추
 호씩이늬앗스니 랑은그역아의 무저함을 웃지말지어다련옥을명하야가져오라호대
 옥이미쇼하며푸른반에 무슴음식을 밧드러좌상에늦게늘모다봄애청강석련엮대덤

에 백여송이련꽃을담았스니 낮낮히 푸여 오는 듯 하야 과이 흐리시와 령릉 혼슈단을형
용치 못홀너라 윤부인이 미소하며 때 때 씨고 왈 이는 이에 강남련조병이로 소이다 전일
부천을싸라 항주에갓슬제이음식을맛보았스오나 제되싸다라 강남사람도더다 못
흔다하더이다 때 때 칭찬하며 란성을보고 제도를무른대 란성왈 이는 이에 려실로든
씩이라 려실을제말하야 사당슈에슈비하고 석류슈에반죽홀후무수이씨여 려꽃처럼
비져 백옥시루에 백단향을휘워찌되 잘 못홀죽열송이에 혼송이를 건지 못하느니 성
혼송이를골나다시 석류슈에찌고 사당슈에담가더긋치든드느이다 때 때 두어송이를
집어 맛보고 칭찬왈 이는 너조의먹을배아니로다 하고 연왕을주며 때야 씨난화보내고
두어송이식분비하야 좌우지인과 윤황량부시비를각각맛되니 모든시비 혼송이식들
고 화림속에호혀져졌거리며 서로 구경하고 스랑하니의 연이 팔월남포에오 희월네치
련하느듯하더라 윤부인이 연왕을보며 왈 상공이부질업시 란성을조롱코져하시더니
도로 허란성에게 조롱을받으시도 소이다 때 때 웃고 그곡절을무른대 연왕이웃고 뒤왈
란성은당돌하야 호승지심이잇고 선랑은잔약하야 겸양지풍이과하기로 소지 선랑과
약속하고 란성의무안하야하느거동을구경코져하엿더니 란패하니이다 란성이소왈
상공이비록 백만군중에장략이과인하시나 필경은홍흔탈의잔씨를당치 못하실지니
첩이엇지괴석을모르리잇고 연왕이대소하더라 란성이선숙인을보며 왈 금일초석에
상해동락하나 홀노일인이 무료적막하니엇지 혐의아니리오 숙인이웃고 즉시방중으

南浦、吳
姬、越女

로드러가더니 란랑의손을끄고 나와 좌에안치며 왈 란이시석풍진에장슈로 횡행하
고 만리절역에지괴를조찰스니 반드시록록혼장부로당치 못홀지견을품은채라엇지
오날이긋치슈속하노랑이만일첩을소더치아닐진대고인의일비슈를스양치아니리
라 란랑이 좋시연왕의좌좌함을벗그려 잔을받지아니하거늘 숙인이작석왈이좌석에
별로외인이업거늘 란이이긋치슈속하니이 첩을괴함이라 첩이맛당히피하야 란으
로서어호붓그림이업게하리라 란랑이소왈 첩이만리타국에일기천척이업스니외인
으로말할죽무비외인이라엇지특별이숙인을서어이알니오 선숙인이링소왈 란의말
이진정이아니로다 란은금일좌석을들너보라우호로 때 때 세어나 쇠경에림하사심심
하시기랑긋흔쇼년으로 무잔이쇼견코져하시니조곰도벗그럴배업슬거시오그다음
은 란위부인이게시나 란이임의이부중에머머려주각지정이일실과긋흐니또붓그려
을배업슬거시오 란성은지괴상동하느니더욱말할배아니오 밧그로 연왕상공이좌상에
안져게시나 란이임의항장으로장전에썩러일장슈치를겨겨스니무슨늠은붓그림이
다시새로이잇스리오 오직선숙인일인이지괴불합하고 천심을물나일향츄곡을로출
코져아님이라 첩이엇지좌상에안져랑에게괴키이되리오 란랑이웃고 마야호로 잔을
바다마시니 란성이또불열왈고언이그름이업도다 백두여신하고경개여괴라하니 란
이흔탈과만리풍진에고초를긋치고오히려일분허심함이업서일죽일비슈를먹지
안터나엇더홀사람은일면이여구하야더긋치다정하노련랑이소왈 란이일죽일비티

주를권함이업고다만아니먹음을취하는니잇가란성이웃고대빅을그득부어권한대
 련랑이다시스양함이업스니원리련랑이과인호쥬량이잇슴이라연왕이미쇼함며윤
 황량부인드려왈호성은종시외인이라레면이잇거니와부인은쥬인이라엇지각각일
 비쥬로써스스러온손을디점지아니사느뇨량부인이차례로권함애련랑이련음삼비
 에괴상이활발하야일쌍츠평파에춘광이무르녹아일지도해져녀비에저즘그늘선속
 인이이윽히보고재로이스랑하야집슈쇼왈봉우지간에지과를중이알문그모음을속
 이지아남이라랑이부중에온지오래나호번비쥬의종용함을일우지못하니내임의고
 인의총곡을모르거든고인이엇지나의잔담을빛최리오련랑이추연왈첩이련성이줄
 하야말슴으로심곡을토출치못할지라금일풍광이이긋치아름답고지과만좌하니원
 권대호가지풍류를가져우호로래메의즐기심을돕고아래로속마음을대강하소할가
 하는이다선속인이일즉련랑의풍류지지잇슴을물낫더니말을듯고더욱대희왈랑
 이무슴풍류를도화하는고랑이쇼왈만막지방에엇지여러가지풍류잇스리오야랑로
 강으로흐르는물이쇼상동등을동호고로상령보슬이일과를유전하야첩이일즉이십
 오현의수곡을비홍이잇스오니호번좌상의우음을도올가하는이다속인이쇼청을명
 하야보슬을가져오라하야련랑을주니련랑이취미를숙이고옥슈로줄줄이골나만가
 삼장을알외니
 地不毛兮

夜郎、瀟湘、洞庭

바다물결이놀리는도다
 海波揚
 燭龍鬪兮
 불긋흔구름이니러나도다
 火雲興
 依天涯而望北斗兮
 하늘가을의지방야복두를브라봄이여
 是帝鄉
 白龍在後兮
 白龍은뒤에잇슴이여
 赤豹在前
 赤豹은표범이압히잇도다
 從蠻王而野獵兮
 蠻왕을조차들에산양함이여
 缺舌暄
 缺舌이깃거리는도다
 從蠻王而野獵兮
 아미를썩고여즐기지아니함이여
 秋風起兮
 秋風을살고저하는도다
 欲消魂
 欲消魂이니러남이여
 從之子而遊上國兮
 外기력이놀아가는도다
 思翁孃而淚沾衣
 子네를말아상국에놀미여
 翁孃兮思兒兮
 翁孃을싱각함이여
 兒爲誰而忘歸

西蜀

鍾子期

련랑이 두기를 못침애 그곡퇴의연감개하야여원여소하야죽히듯는자로추연감동하
 니선숙인이개연함루하며련랑의손을잡아왈운면은셔축비단이오공작은남방재라
 그싸히멀므로본가를속이지못하느니련랑의아름다운지질로감개불우흔탄식이엇
 지이에밋츠리오하고죽시죄우를명하야거문고를가져오라하야일곡을두화답하니
 이는종즈기의아양곡이라고소리딜탕화락하야듯는자로즐거운빛이잇스니인간진
 루를우연이니즐듯하더라란성이흔연이웃고석상에노인옥덕을집어유선스를알외
 여일창일화하니츠시석양이셔산에빛치고령릉흔화영이좌상에산란흔중연왕과삼
 랑이다각각미취하야풍류를일시에알외니연왕의옥면취흔은춘풍이니러나고삼랑
 의월리화용은뜻빛을시키고하야청아흔옥덕과령릉흔금슬이딜탕화창하니삼춘풍과
 이모다일좌상춘원에잇더라날이어두어잔치를파홀셔래메질거움을이기지못하야
 삼랑을보며왈로신이금일쇼견을잘하도다하고각각도라갈셔래메연왕을보아왈내
 금일련랑을저세봄애비단안식이절티하고무예출류홀썸아니라지견의민첩함과
 상의활발함이심상흔인물이아니라란성과방불함이만흐느지장찾엇지구쳐코져
 하느노연왕이웃고티왈쇼지방탕하와만리절역에부지럽시다려왔스오나엇지라문
 에보내리오다만싱각건대이제삼첩이너모과분흔고로감히야야씩품달치못함이로
 소이다래메쇼왈아씨의부친씩이말을고하니답하시되년쇼흔히중첩을들은비
 록부모된자의원홀배아니나스고임의비각지못할가시부니썰니슈습하야련랑의역

을흔탄식이업게하라하시니은저는속히도모홀지어다연왕이유유하고물너와란성
 침실에니르니련옥이그왈랑져아싸련랑을차자중향각에가시니이다하거늘연왕이
 그길로선숙인침실에니르니숙인이숙취미성하야축하에척상을의지하야조을거늘
 연왕이쇼왈랑은삼춘비주에잇때것저지못하노숙인이놀나맛거늘연왕이왈오늘노
 름이즐겁더나숙인이키용왈사름의모음이각각이오쳐디다르오니뜻을보고웃는자
 도잇스며동곡하느자도잇스오니상공이엇지금일노름에중인이즐겁고흔사름이설
 위함을모르시느니잇가연왕이놀나무러왈그설위하느재취노숙인의디답이무엇이
 라흔고하회를보라

옥루몽권지삼 종

大正二年三月廿五日 印刷
全 三月廿七日 發行

玉樓夢卷三

定價金四十五錢

郵稅六錢

京城南部上鞏洞三十二統四戶

崔昌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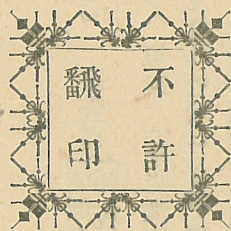
崔誠愚

新文館印出所

兼 編輯 人 全

兼 印刷 人 全

兼 印刷 所 全



發行所

京城南部上鞏洞
京城中部布屏下

新文館
廣學書舖

▲新文館發刊小說▼

불상 혼동무

全壹冊 定價貳拾錢
郵稅四錢

英國 라미이夫人 原著 [崔南善譯]

기이혼저조와큰뜻을품잇스다가난은집에나고복을
어주는이업는새뵤으로참혹하게세상을씨나노이약
이니고금무수혼서최중에서빅가지를섬는가운디참
예혼일혼난척이라

검둥의설음

全壹冊 定價參拾錢
郵稅六錢

米國 스토우夫人 原著 [李光洙譯]

이침은한쇼설이라하면그만이나실상은이빈만명군
소가전정을하고소립만명중이량만이되게혼련리인
도의대언론이니이십여나라말에번역되고수빅만사
람의칭찬을엇은것이니라

자랑의단추

全壹冊 定價廿五錢
郵稅四錢

데데라하는한은화가이상혼단추한아를가지고하늘
나라에는곳센군소가되고이세상에서는날낸선비가

되논아름다운이악이나아모든지배오고생각혼일이
만혼척이라

엘니버유람기

全壹冊 定價拾錢
郵稅貳錢

英國 스위프트 原著

유람조하하는한의원이우연히표풍을당하야산림이
갓혼왕사람이사나라와손가락만혼알사람이사논
섬을구경하는기특이니기이혼이악이가척에가득하
니라

만인계

全壹冊 定價貳拾錢
郵稅四錢

英國 에디워어쓰夫人 原著

이침은뜨게생긴지불은집안의저화오오즉부즈런과
사랑이참부락을지여내논리치를그러낸것이니소실
은주미잇고필법은교묘하니라

絶倒百話

開卷嬉嬉

各壹冊 定價各拾錢 郵稅貳錢

이두침은古今笑話中特別히趣味잇는者百則식을選
하야輕妙洒脫한文으로記述한者니라

